

[xx씨네 집에 유령이 나온대!]

시나리오 정보

권장인원 : 다인을 권장합니다. 혼자가면 힘들어요.

추천관계 : 폐허에 가보고 싶은 pc 혹은 그런 pc에게 설득당하거나 끌려가게 되는 pc.

플레이타임 : 테스트 플레이에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rp와 플레이어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배경: 현대 한국으로 설정되어있으나 개변가능.

추천기능 : 관찰, 민첩

난이도 :

탐사자 - ★☆☆☆☆

키퍼 - ★★☆☆☆ (탐사자들의 행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필요)

주의사항

개요

[xx씨네 집에서 유령이 나온대!]

예쁜 현대식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한적한 시골마을. 그곳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전원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xx씨네 집이라고 불리는 버려진 폐허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지 오래되었건만 이상하게 xx씨의 집만은 팔리지도 않고, 손질도 되지 않아 비슷비슷하게 생긴 건물들 사이에서도 혼자 특 튀는 모습입니다.

그런 집이다보니 xx집이 유명한 폐허가 되는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끔 인터넷에 폐허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는 하지요.

어느날, 그룹 중 한명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xx씨네 집에 가보지 않을래?"

!!KP 만 확인해주세요 아래로 진상이 이어집니다!!

KP 를 위한 정보는 푸른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진상

이 마을은 사실 다올로스의 숭배자들이 만든 마을였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별의 출현을 목격한 후, 불길한 쿠아칠 우터스의 출현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xx씨의 집으로 불리는 곳에서 그들의 신인 다올로스께 지혜를 요청하였고, 다올로스는 쿠아칠 우터스의 출현을 저지하도록 자신의 숭배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식을 진행하던 xx씨는 시간의 차원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진행한 집에 영원히 매이게 된 xx씨, 그리고 그가 매인 집은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별개의 차원이 되고말았습니다.

숭배자들은 제사장인 xx씨 없이 다시 다올로스를 부를 수 없어 차원의 문을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실종자들처럼 모르는 사이에 차원의 문을 넘게 된 탐사자들은 돌아갈 수 없음에 좌절하여 무기력해진 xx씨를 발견합니다. 이제 탐사자들은 xx씨의 의욕을 되살려 차원의 문을 달아야만 합니다!

도입

평화로운 주말 오후. 탐사자들의 휴대폰이 울리고, 문자가 도착합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에는 폐허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자.]

해당 캐릭터의 말투로 변경해주세요

친구가 유령이야기 같은것에 관심이 많은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폐허에 가자고 하는건 처음입니다. 탐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가볍게 rp로 진행해주세요. 친구와 문자로 대화를 해도 좋고,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폐허탐험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친구가 보낸 폐허를 조사하고 싶어하는 탐사자가 있다면, 친구가 사진만 보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안내해주세요.

친구는 꼭! 그 폐허에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친구의 설득, 혹은 조름에 못이긴 탐사자는 결국 친구와 함께 폐허 탐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의 날 아침. 친구와 만나기로 한 버스터미널로 향한 탐사자는, 폐허탐험을 하는 것이 자신과 친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폐허가 있는 곳이 여기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도요.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버스에 오른 일행들. 탐사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탐사자들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차피 버스에서 세시간씩 앉아있어야하니까요!

【폐허 조사】

성공 - 폐허는 **xx**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2층으로 된 현대식 전원주택입니다. 폐허체험 너튜버들 사이에서 한때 핫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면 정말 유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도 많네요. 탐사자는 **xx**의 집에 대한 수많은 글들 중, 그 동네에서 실종사건이 유난히 자주 일어났다는 글이 몇개 보입니다.

실패 - 폐허는 **xx**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2층으로 된 현대식 전원주택입니다. 폐허체험 너튜버들 사이에서 한때 핫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면 정말 유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도 많네요.

【xx씨】

성공 - 사진 한장을 찾은 탐사자! 1층짜리 정원주택 앞에서 찍은듯한 중년남자의 흑백사진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미쳤다고 하네요? 그 후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패 - 사진 한장을 찾은 탐사자! 집 앞에서 찍은듯한 중년남자의 흑백사진입니다.

세시간이나 가는 버스는 중간에 휴게소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조차 없을 정도로 오가는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이군요. 폐허 열개쯤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입니다. 일행은 버스정류장에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마을

한참만에 마을에 도착한 탐사자들. 사이는 좀 좋아졌나요? 아직 데면데면하더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하루를 보낸다면 누구라도 친해질걸요? 원래 역경을 함께하면 쉽게 친해진다고들 하잖아요.

버스를 또 타고 들어온 곳은... 정말, 정말 판에 박힌 시골마을입니다. 둘러봐도 보이는거라곤 논밭과 산, 개천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작은 물줄기가 전부입니다.

총 7채가 있는 건물들은 현대식 전원주택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여긴 편의점도, 슈퍼도, 여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가버린 버스는 내일이나 되어야 돌아온다구요!

폐허체험 너튜버들은 폐허에서 잠을 자서인지 여관이 없단 말도 안했는걸요. 졸지에 잘못도 없이 한적한 시골마을에 떨어진 탐사자들.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탐사자들이 주위를 둘러보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해주세요.

전원주택 - 주택단지라도 만들려했던건지 건물들은 개성없이 전부 비슷한 모습입니다. 6개의 건물은 서로를 마주보고, 가장 안쪽에 마지막 건물이 자리합니다. 마지막 건물이 폐허입니다.

xx씨네 집 - 집 앞에는 부동산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팔고있다는게 사실인가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도 너덜너덜한게 아무래도 붙은지 오래된 모양입니다. 반쯤 열린 문 너머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냥 오래되고 주인이 없는 집 정도로 보이지 흥가나 폐허처럼 불길해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관찰】**

성공시 - 인터넷에서 보았던 사진과는 달리 **xx씨네 집**으로 알려진 이 폐허는 **2층**입니다.

산 - 폐허가 자리한 쪽 집 뒤로 뒷산이라기엔 조금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어두운것이, 자칫잘못하면 길을 잃고 헤메기 딱 좋아보입니다.

실개천 - 버스가 들어오는 길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실개천은 과장해서 말하면 사람 소변줄기보다 약간 더 굵은 정도입니다.

논밭 - ㄷ자 모양의 주택단지들 중 서로 마주본 주택 여섯개의 뒤편에는 논밭이 넓게 펼쳐져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사용되지는 않는지 눈이 닿는 곳까지는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얼마 넓지않게 작은 텃밭정도만 사용되고 있는듯 합니다.

목이 마르면 저 쪼로로로록 소리를 내는 물줄기라도 받아마셔야 할까요? 탐사자들이 어째야할지 모르고 난감해하는 그 때,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학생들도 저기 폐허왔어?"

아주 곱게 나이드신 할머니입니다. 유명한 폐허라더니, 폐허를 찾는 사람이 익숙해보이십니다.

"여기 잘못도 마땅찮은데 버스타고 왔나보네. 어떻게, 잘 곳은 있고?"

할머니는 폐허 옆집에 사시는 분으로 혼자 사시기 때문에 **2층**은 비어있다고 하시며 거기서 하루를 보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다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고계시다고 합니다.

심리학 판정시 할머니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동네에는 딱히 차가 있는 사람도 없는데다가, 옆동네로 걸어가려면 몇시간이 걸린다면 다시 한번 **2층** 숙박을 권유합니다. 가끔 오는 젊은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으시다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대인관계로 판정시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는것 같지 않다고 알려주세요!

탐사자들이 할머니댁으로 가게 유도해주세요.

박인숙 할머니네 집

할머니 댁은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별개로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보면, 사람들이 자주 모인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지 꽤 널찍한 공간에 3인용 소파 세개와 테이블 하나만 놓여있습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남아서, 탐사자들이 이불을 깔고 눕기에도 우리가 없어보입니다.

"집은 여기 풀고, 지금 바로 폐허로 갈건 아니지? 1층 내려와서 이불도 가져가고, 커피라도 한잔씩 해."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외로우신건지 할머니는 탐사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탐사자들은 일단 2층을 둘러봅니다.

사다리 - 2층에는 다락방이 있는건지 한쪽 벽에 사다리가 천장을 향해 놓여있습니다. 그 위로 잡아당기면 열리는 문이 있지만, 잠겨있습니다.
소파 - 오래되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항상 앉는 자리들이 정해져있기라도 한건지 쿠션 여덟개가 동그란 모양으로 덮여있습니다.
테이블 - 소파와 마찬가지로 꽤 오래되어 보입니다. 나무다리로 되어있는데, 누군가 칼로 새긴듯한 5각형의 별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집주인인 박인숙 할머니의 젊은 모습인듯한 사람과 친한 지인으로 보이는 네명의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지능】

성공시 - 사진 속에 어딘가 낯이 익어보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젊은 박인숙 할머니와 친밀한 관계인것처럼 보입니다.

실패시 - 제법 오래 된 흑백사진 입니다.

탐사자들은 짧게 집을 정리하고는 1층으로 내려갑니다.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바로 옆집에 흰 개가 보입니다. 개는 집 안에서 들리는 흰둥아, 하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에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쿵! 하고 한번 짖고는 집안으로 쏙 들어가버립니다. 마당이 넓으니 확실히 개를 키우기는 좋아보입니다.

1층에 내려가자 할머니는 웃으며 여러분을 맞아줍니다. 문에서 곧장 들어가면 있는 부엌 식탁에는 여러분의 숫자대로 김이 모락모락나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다 흰둥이랑 마주쳤나봐? 양전한 녀석인데 외부인만 보면 좀 짖어서.... 놀라지는 않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시는 할머니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rp 구간입니다. 다음 내용은 필수적으로 탐사자들에게 알려주세요.

현동이 : 지금 빈집인 집 주인이 키우던 개로, 집주인이 갑자기 사라져서 혼자 남겨진 아이를 옆집 김씨가 키우고 있다.

마을: 현재 마을에 거주중인것은 총 8명. 2층집들은 모두 구조가 같아서, 폐허도 할머니의 집과 구조가 같은 모양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xx씨의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는 경우: 예전 젊은 시절에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xx씨의 사진 속 건물이 1층인것을 묻는 경우/빈집 사람과 xx씨가 둘다 사라진 것에 대해

묻는 경우: 할머니는 머뭇거리시다가, 사실 xx씨의 집은 요 옆의 2층 폐허가 아니라, 한칸 더 옆의 1층짜리 빈집이라고 알려줍니다. 2층 폐허는 팔리지 않아서 xx씨가 관리하던 비어있던 집이라고 합니다. 현동이는 사실 xx씨의 개.

할머니는 같이 이야기 할 상대가 많이 그리우셨던 모양입니다. 크게 묻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술술 늘어놓습니다.

"팔려고 내놓기는 했다지마는.... 원래 xx씨 살던 집도 그렇고, 저 폐허도 그렇고 xx씨 생각이 나서 영 팔기가 그래. 그렇게 사라질 일이 아니었는데...."

"저거, 귀신나오는 폐허같은게 아니고 그냥 관리가 안 된 집이야. xx씨 집은 내가 정리를 해서 괜찮은데, 저 폐허는 내가 들어가서 정리할 엄두가 안나다보니 저렇게 남아버렸지 뭐야. 그런데 괜히 귀신이 나오네 어쩌네 하는 소문이 붙어버린거지."

"...사실, 나 젊을적에 xx씨하고 결혼하면 그집에서 살려고 그랬었어. 그러다보니까 차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옛 추억에 잠긴듯한 눈으로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십니다.

줄지에 폐허가 사실은 유령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게 된 탐사자들은 어색하게 서로의 눈치만 봅니다.

"아차, 내 정신좀 봐. 이불 가져가야지?"

할머니는 젊은 학생들을 너무 오래 붙잡아뒀다며 이불을 건네줍니다.

2층에 올라간 탐사자들. 유령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겠다, xx씨네 집에 가야 할지 말아야할지 정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분명 너튜브 영상에는 뭐가 나온 것처럼 찍혀있었는데 말이에요. 전부 사기였을까요?

-최대한 탐사자들이 xx씨네 집으로 가는 쪽으로 해주시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불을 깔고 자도록 해주세요. 깨어나면 ??? 입니다. 하지만 역시 폐가탐험은 저녁에 하는게 맛이죠!

xx씨네 집(폐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유령의 집이 가짜라는걸 알게 되었지만 탐사자들은 온게 아까워서라도 폐가탐험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xx씨네 집의 현관은 이미 조금 열려있어서 들어가는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폐가에 발을 디딘 탐사자들은 어둡긴 하지만 생각보다 어지럽지 않은 내부를 확인합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박인숙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구조는 할머니댁과 똑같습니다.

- 불을 켜고 싶어한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알려주세요. 핸드폰 불빛을 켜도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1층

왼쪽방 - 아무도 살지 않던 집이라고 하더니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문이 하나 깨져있기는 하지만, 이 마을까지 들어오는 불량학생이나 노숙자는 없는지 벽은 흐른 세월에 비해 깨끗합니다. 창문이 깨져있기 때문일까요? 이상하게 서늘한 기분도 듭니다.

오른쪽방 -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지만 박인숙할머니가 xx씨와 결혼하면 살기로 했던 집이어서 그런지, 가구 몇개가 들어와있습니다. 낡은 서랍장과 책장이 있는 방입니다. 서랍장에는 먼지밖에 없고, 책장 역시 비어있습니다.

부엌 - 가스렌지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들어오려고 했었기 때문일까요? 식탁에는 하얀색 식탁보가 덮여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낡고 쓸쓸해보입니다.

거실 - 등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으로 탐사자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에 발을 올린 순간부터 뭔가 공기가 변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상한 악초를 태운듯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계단을 한칸, 한칸 올라가는데마다 어디선가 개가 으르렁, 낮게 우는 소리같은게 들리기도 합니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들어선 탐사자들은 갑작스럽게 중력이 달라진듯 발밑이 무겁게 느껴지고, 주위가 일렁이는 듯한 착각을 느낍니다. 곧이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을 잃었던 탐사자들은 하나둘씩 깨어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상할정도로 깨끗하고 새것같은 벽지가 보입니다. 한쪽 구석에 다락방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있고, 한쪽 벽에 작은 무대라도 세우려고 했는지 높이가 다른 단이 하나 놓여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곳이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다같이 정신을 잃었던 것이 정상일리는 없겠죠. 당황한 탐사자들이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주위는 온통 새까맣기만 합니다. 이건 평범한 밤 같은게 아닙니다. 별도 달도 떠있지 않은 새카만 어둠은 xx씨네 집과 빈집을 연결하는 흙길을 제외한 모든 곳을 탐욕스럽게 삼켰습니다. 두려움을 참고 길 밖으로 나서려고 하면, 무언가 물컹한 젤리 속으로 발을 들어놓는 듯한 기분입니다. 믿고싶지 않지만 여긴 현실이 아니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상한 곳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탐사자들, **SANC 1/1d3**

탐사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탐사자들이 나온 폐가와 원래 xx씨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빈집, 두군데 뿐입니다.

- 핸드폰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빈집

1층짜리 집입니다. 문이 잠겨있습니다. (폐가에서 열쇠를 획득한 경우 열어줍니다.

열쇠공판정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살고있는것처럼 깨끗한 집은 마치 과거에 갇혀있는 듯 합니다.

[침실]

침대와 서랍장, 작은 사이드테이블이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지만, 집안에는 다행이 불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전기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침대 - 침대보와 이불도 새것 같습니다. 약간의 담배냄새가 나는걸로 보아 xx씨는 흡연자였던듯 합니다.

서랍장 - 서랍장에는 옷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꽃이 들어있는 화병하나와, 젊은시절의 박인숙 할머니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이 있습니다.

작은 사이드테이블 - 위에는 성냥갑과 재떨이가 있습니다. 재떨이는 쓰고 닦아둔것인지 깨끗합니다. 제법 튼튼하고 무거운것이, 맞으면 꽤 아플것 같습니다.

[작은방]

문을 열기 전 [듣기] 판정에 성공하면, 문 너머에서 무언가 돌아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차원에 돌아다니고 있던 차원의 불량자가 내는 소리입니다. 듣기판정에 실패하거나 들었어도 방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되면, 탐사자들은 마침 다시 이동을 하고있던 차원의 불량자와 마주칩니다. (폐하 2층 다락방 열쇠를 얻으려면 들어가야합니다.)

[차원의 불량자]

이동중이기 때문에 한라운드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이 사이에 차원의 불량자는 다행이도 탐사자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만약 탐사자들을 로스트시키고 싶으신 경우, 이동중이 아닌 차원의 불량자와 맞닥트렸다고 개변해주세요. 재미를 위해 한턴정도는 전투가 있어도 좋습니다.

체력 17, 체구 2, 마력 10, 이동력 7, 피해보너스 +1d6, 근접전 45(1d8+피해보너스) 회피 30% (자세한 정보는 수호자룰북 306페이지 참조)

탐사자들은 유인원도, 곤충도 아닌 거대하고 불경스러운 모습의 무언가가 발을 질질 끌며 방안을 배회하는것을 발견합니다. **SANC 1d10**
약간 희미하게 어른거리며 방안을 돌고있는것은 탐사자들을 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바탕 공격이 끝나자, 차원의 부랑자는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은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내 희미하게 어른어른 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열쇠가 하나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뒷마당]

바깥은 어두운데, 집의 뒷마당에는 꼭 햇빛이 드는것처럼 환합니다. 개집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xx씨가 살던 때 키우던 흰둥이의 집인듯 합니다.
개집 - '흰둥이' 라는 이름이 쓰인 빨간색 목줄이 놓여있습니다. 목줄 근처에 흰색 털이 꽤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폐허

1층

왼쪽방 -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탐사자들은 희미하게 빛나는 우울한 표정의 남자와 마주칩니다. 남자는 탐사자들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천장을 뚫고 사라집니다. 유령을 본 탐사자들, **SANC 0/1**

오른쪽방 - 아까 보았던것과는 다릅니다.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냄새가 나는듯한 방에는 훨씬 새것같은 서랍장과 책장이 놓여있습니다. 아까는 비어있던 책장에는 책이 몇권 놓여있습니다.

[관찰]

서랍장 - 성공시 서랍장 안에서 열쇠(**빈집 현관열쇠입니다.**)를 발견합니다. 실패시 행운을 빕니다.

책장 -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문자가 쓰인 책이 있습니다. 펼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펼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느껴지는 사악한 기운에 **SANC 0/1**

부엌 - 식탁에 놓인 식탁보가 깨끗합니다. 위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서인지 양초가 놓여있습니다. 부엌에는 몇가지 물건들이 놓여있습니다. 탐사자들이 관찰로 무기로 쓸만한 물건을 찾는다면 식칼과 잡동사니들(접시) 따위를 주셔도 좋습니다. (**쓸모는 없습니다.**)

2층

2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창문조차 달리지 않은 곳에는 그저 다락방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만 놓여있을 뿐입니다. 탐사자들에게 열쇠가 있다면, 다락방을 열어주세요. 열쇠가 없는경우, 무슨짓을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락방

다락방을 타고 올라가자 거기에는 아까 보았던 희미하게 빛나는 남자 유령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지능]

성공시 - xx씨입니다! 사진에서 보았던 그 얼굴입니다. 그리고 박인숙 할머니댁 2층에서 보았던 마을사람들의 단체사진에도 찍혀있었던 얼굴이기도 합니다.

실패시 - [행운]을 다시 한 번 돌려봅시다....

rp구간.

xx씨는 현재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습니다. 동떨어진 차원에 유령같은 꼴로 매여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지나고 있으니깐요. 탐사자들은 xx씨가 말을 하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누군가 박인숙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흰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xx씨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긴... 과거이자 분리된 차원입니다. 열려있는 차원문을 고정시켜야 탈출할 수 있어요. 열린 차원문을 닫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 넘어오게 될겁니다."

"하지만 차원문을 고정시키는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탈출한다 하더라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신께서 저를 이곳에 고정해두었으니깐요."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년이 넘도록 이 집에만 갇혀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단말입니다."

민철씨의 몸은 현실에서는 이미 썩어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탐사자들이 차원문을 고정시키는 법을 물으면 xx씨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웁니다. 어떻게하면 xx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대인기능 판정】

성공시 - xx씨는 너무 오래 홀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xx씨를 설득하기 위해 xx씨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상기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패시 - 실패하지 말아주세요...

【지능】

성공시 - xx씨에게 소중한것... 그것은 사람과 반려동물일겁니다. xx씨에게 박인숙 할머니를 떠올릴수 있는 물건과 흰둥이의 물건을 가져다주면 마음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실패시 - [교육][심리학][행운] 까지도 돌려봅시다..

- 빈집에 들러 흰둥이의 목줄(혹은 털)과 박인숙 할머니의 사진이 담긴 로켓을 가져와 xx씨에게 건네도록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드리지 못한다면 xx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켓과 흰둥이의 목줄을 받아든 xx씨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사진과 목줄만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울고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탐사자들의 마음도 어쩐지 무겁습니다.

"제가 차원문을 잠시 고정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에 빠져나가세요. 오래 고정하진 못합니다."

"그 사이에 빠져나가시지 못하면... 저와 함께 이 지옥에서 살아야하니....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시게 되면.... 인숙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xx씨가 무언가 주문을 외우자 희미하게 푸른빛이 도는 원형의 문이 나타납니다. 점점 진한 파란색이 되어가는 문에서 빛이 터져나오는 순간, xx씨가 외칩니다.

"지금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민첩】

성공시 - 탐사자는 떨리는 푸른문을 짹싸게 통과합니다.

실패시 - 탐사자는 너무 느렸습니다! 문을 향해 달렸지만....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폐허

탈출에 성공한 탐사자들이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 탐사자들은 자신들이 폐허 2층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난 탐사자들의 눈에 2층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입니다. 빠르게 집을 빠져나간 탐사자들이 박인숙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께 xx씨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ENDING 1 - 일부 탐사자가 로스트 된 경우

상실의 추억

그저 웃고 떠들 추억이 되었어야 할 여행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막 친구가 된 탐사자도, 이전부터 친구였던 탐사자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잃은 아픔은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을겁니다.

탐사자 로스트 or 생환

ENDING 2 - 모든 탐사자가 생환한 경우

이상한 일

박인숙 할머니께 xx씨의 마지막 말을 전한 탐사자들은, 할머니가 xx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신의 미래를 바쳐 누군가를 구했던 xx씨는 자신의 과거마저 바쳐 탐사자들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xx씨를 기억하는 것은 오로지 탐사자들 뿐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돌던 "xx씨네 집" 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깐요... 과거이자 분리된 차원에 있던 xx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주세요.

탐사자 all 생환

보너스 이성점수 +1d3

END...?

폐허 바깥에서 얼떨떨한 얼굴로 뒤를 돌아가는 탐사자들을 폐허 안쪽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xx씨, 그리고....

꺼내줘요!
나가게 해줘!

분리된 차원에 들어온 탐사자들의 분리된 영혼은, xx씨와 함께 벗어날 수 없는 집에서 현재로 돌아간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곳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분리된 차원에 빠졌던 탐사자들의 영혼이 둘로 나뉘어 한쪽은 영원히 xx씨와 함께 분리된 차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션 완료 후 진상을 따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